

2007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즐거운 생활』 실험본교과서의 ‘국악 영역’ 고찰

〈차 례〉

- I. 서론
- II. 2007 개정교육과정의 배경과 방향
- III. 2008 『즐거운 생활』 실험본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분석
- IV. 결론

I. 서론

교육과학기술부는 2007년 2월 28일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개정 고시하였다.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교육법 제2조의 홍익인간의 교육이념을 따른 제1차 교육과정 이후 7차에 걸쳐 교육과정을 개정하였으며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추구하는 새교육과정을 구현하기 위한 도구로서 교과서와 교사용지도서가 제작 활용되었다.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각 교과목의 성격에 따른 교과서가 국정으로 제작 배포되고, 중학교이상은 교과서 검인정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음악 관련 교과서로 초등학교 1,2학년에서는 통합교과목의 성격을 지닌 ‘즐거운 생활’이 3학년 이상은

독립교과로서 '음악'이 있으며 2008년 현재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실험본교과서 '즐거
운 생활'이 각 실험학교에 배포되어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실험본교과
서가 과연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구현하기에 바람직하게 제작 활용될 수 있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2007 개정 교육과정의 배경과 방향

2007 개정 교육과정은 시대적·사회적·문화적 변화와 다양한 개정 요구에 따라 교육
과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현행 제 7차 교육과정의 기본 철학과 체제를 유지
하되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개정을 최소화하였다. 특히 사회·문화적
발달 및 변화에 따라 과학교육, 역사교육 강화, 인권교육, 진로교육 등등 다양한 요구와
각계각층의 민원에 따른 의견을 종합하여 각 교과와 재량활동, 특별활동에서 범교과 학
습내용으로 반영토록 제시하였다. 그 중에서도 주변국의 역사왜곡에 대응하고 국제화 시
대에 적합한 역사교육을 위해 중·고등학교의 사회 교과에서 '역사' 과목을 독립시키
고 고등학교 선택 과목으로 □□동아시아사'를 신설하였으며, 고등학교 1학년의 역사과
목 수업시수를 주당 2시간에서 3시간으로 확대하였다. 역사수업시수를 확보하는 중요성
만큼 음악교과에서 국악시간의 확보는 교육과정의 목표를 구현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개정교육과정 총론의 학교급별 교육목표 중 초등학교 교육목표 라항을 보면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이라고 되어있다. 또 개정된
음악과 교육과정 중 국악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 시대적·사회적·문화적 변화에
따라 현대사회의 가장 영향력 있는 문화상품으로 인식되는 음악 산업에 대한 인식의 변
화와 학교 음악교육의 세계적·학문적 조류에 따른 변화의 수용에 개정의 배경을 두고
음악의 다양한 역할 및 기능을 부각시켰다. 또 세계 여러 나라의 음악, 한국의 전통음악
부터 현대음악까지 역사 속의 음악을 수용하고 국악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국악
학습 내용 증대 및 체계화, 다양한 국악 학습 활동과 지도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였다.

Ⅲ. 2008 『즐거운 생활』 실험본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분석

즐거운 생활은 음악, 미술, 체육의 통합교과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교과서의 성격은 '건강한 몸과 마음을 기르며 창의적인 표현 능력과 감상 능력, 심미적인 태도를 함양하기 위해 다양하고 즐거운 놀이와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된 통합교과이며, 이에 따라 다양하고 즐거운 놀이와 활동을 통하여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창의적인 표현 능력과 감상 능력, 심미적인 태도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¹⁾

그러므로 통합교과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과 기본 취지 및 학교급별 목표를 구현해야한다. 이에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이라는 개정교육과정의 취지를 잘 살려 구성되었는지 음악부문을 형식과 내용면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형식적인 면

교과서의 안내 아이콘의 활용, 삽화 그리고 교사용지도서의 형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안내 아이콘의 활용

교사와 학생들에게 단원의 학습활동을 간단명료하게 안내하기 위하여 곰돌이를 활용하여 곰돌이의 풍선 수에 따라 차시 수를 알 수 있도록 한 점은 한 눈에 차시 수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좋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단원의 도입은 곰돌이가 바구니 안에, 단원학습전개는 서서 풍선 든 곰돌이, 단원학습의 마무리는 곰돌이가 풍선을 안고 바구니 안에 있는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그러나 해당 차시의 제재가 과연 단원의 도입 및 정리로 적합한가 하는 점에서 볼 때 굳이 도입, 전개, 정리에 따른 아이콘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

1)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2007. 2. 28)중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의 내용임

나. 삽화

대부분의 아이들은 만화를 좋아한다. 만화는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부정적인 측면도 많다. 책을 좋아하게 하고 딱딱하고 지루한 내용도 즐겁게 학습할 수 있게 하는 반면,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상상력, 사고력, 창의력 등을 빼앗아 간다. 실험본 '즐거운 생활'의 삽화는 만화체이다. 색깔도 지나치게 원색적이고 화려하다. 사람의 모습은 머리가 몸체보다 크고 얼굴의 눈도 지나치게 커서 표정이 과장되어 보인다. 좀 더 밝고 활동적으로 그리고 싶은 의도는 이해하지만 전체적으로 산만하고 어수선하게 느껴진다. 게다가 한 쪽 눈을 찡그리거나 웅크리는 모습은 얼마나 많은지, 심지어 85쪽의 삽화는 얼굴이 드러난 5명의 어린이 모습 중 3명이, 78쪽에는 8명의 어린이 모습 중 네 명이 한쪽 눈을 감은 모습이다. 이런 삽화를 지속적으로 보고 학습한 어린이들이 어떤 정서적인 안정감과 음악적인 사고를 하며 성장할 지, 어떤 표정을 자주 짓게 될지 의문이다.

다. 교사용 지도서

1) □□ 교수·학습 설계 과정의 불필요성

통합교과의 특성을 살려 주제통합을 시도하고 타교과와의 연계도 염두에 둔 점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차시별 지도안에서 활동의 제목을 나열하고 요약하는 식의 □□ 교수·학습 설계 과정의 기술이 꼭 필요한가? 하는 의문이다. □□ 교수·학습 과정에서 □□ 교수·학습 설계 과정이 중복되어지므로 무의미한 반복이 되어 지도서 내용이 산만하게 느껴진다.

2) 수업단계의 불명확성

□□ 교수·학습과정은 이론테면 수업의 시작부터 끝까지 연결되어 지는 과정인데 도입, 전개, 과정이 명확하지 않다. 실험본 교사용 지도서는 각각의 지도 내용들이 활동에 따른 내용을 주요 활동으로 크고 진한 글씨체를 사용하여 제시하고 각 지도안마다 내용이 다르며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많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한 눈에 수업의 진행 상태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탐구중심의 학습이라면 최소한 '활동준비하기', '탐색하기', '활동하기', '정착 및 적용하기'라는 단계별 용어를 사용하거나 학생의 필요와 흥미중심의 학습이라면 '관심영역 탐색하기', '(재)구상하기', '활동하기', '정교화하기'라는 용어를 사

용하여 전체적인 통일성을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니면 제재 별로 통일하기가 어렵다면 주요 활동 서너 가지만 굵은 글씨로 구분하여 주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2. 내용 구성면

내용 구성면에서는 교과서에 실린 국악과 서양음악의 악곡 지도 시간 수 및 감상곡, 악기의 지도, 악곡 선정 등에 관한 것을 분석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가. 국악곡과 서양악곡 지도 시간 수

‘즐거운 생활’의 국악곡과 서양악곡의 지도 시간 수를 비교 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1학년 1학기 ‘즐거운 생활’

<표 1> 1학년 1학기 지도 시간 수

()안은 배정된 시간

구분	즐거운 생활(현행)		즐거운 생활(실험본)	
	제재곡	총 시수	제재곡	총 시수
서양음악	안녕(1) 음악에 따라 움직이기(1) 학교가는 길(1) 햇볕은 짹짹(2) 비행기(2) 종이접기(1) 리듬악기 주법(1) 여름 냇가(1) 리듬합주(1)	11	참종이(1) 봄이 왔어요(2) 우리집은 웃음바다(1) 우리집(1) 누구를 만날까요(2) 여름냇가(2)	9
국악	남생이 놀아라(2) 새는새는(2) 우리형제(2) 우리마을(2) 괘꼬리(1) 장단 음악감상(1) 장단 표현(1) 두꺼비 노래(1) 신체표현(1)	13	남생이 놀아라(2) 장단 맞추어 신체표현하기(2) 달팽이(2) 손치기 발치기(1)	7
기타	여러 가지 소리(1) 효과음(1) 동물울음소리(1)	3	음악 듣고 느낌 나타내기(2) 다양한 방법으로 노래부르기(1)	3

음악전체에 대한 국악 비율	13/27(48.1%)	7/19(36.8%)
즐거워진 시간 수에 대한 음악 총시간 (비율)	27/78(34.6%)	19/72(26.4%)

위의 <표 1>을 보면 전체 악곡 지도 시간 수에 대한 국악곡의 비율이 현행 교과서는 48.1%였는데 비하여 실험본교과서는 36.8%로 11.4%가 감소하였고 전체 음악 시간 수 확보에 있어서도 34.6%에서 26.4%로 8.2%가 감소하였다.

현행 교과서의 '음악에 따라 움직이기'는 국악곡과 서양악곡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서양악곡을 많이 활용함으로 서양악곡으로 분류하였고, '장단에 맞추어 신체표현하기'는 실제적으로 체육과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으나 '장단과 춤'이라는 관점에서 국악으로 분류하였다. 실험본교과서의 '음악 듣고 느낌 나타내기'(서양악곡 감상)나 '다양한 방법으로 노래 부르기'(소고를 제외한 트라이앵글, 캐스터네츠, 큰북, 작은북 등 서양악기 사용)는 교사용지도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적으로 서양음악으로 분류하는 것이 옳으나 주제 분류로 기타에 넣었다. 기타 음악을 서양음악으로 분류할 경우 국악곡의 비율은 더욱 낮아진다.

2) 2학년 1학기 '즐거운 생활'

<표 2> 2학년 1학기 지도 시간 수

()안은 배정된 시간

구분	즐거운 생활(현행)		즐거운 생활(실험본)	
	제재곡	총 시수	제재곡	총 시수
서양음악	즐거운 하루(2) 나무는 봄비를(2) 높은 하늘(1) 동물의 사육제 감상(1) 민속음악 감상(1) 우리는 친구(1) 아름다운 나라(2) 땀꾸기(1) 숲속의 나라(1) 땀꼭살츠 감상(1) 여름방학(2) 숲속의 물레방아 감상(1)	16	봄소리(2) 소리탐색(1) 소리표현(1) 봄(1) 빠르기 다른 음악감상(1) 즉흥연주(1) 함께 달리자(1) 어린이 왈츠(2) 색깔 마을(1) 여름 소리(1) 강으로 바다로(1) 리듬합주(2) 여름방학(1)	16

국악	어깨동무(2) 꼭꼭 숨어라(2) 벌아벌아 꿀떠라(2) 민속음악감상(1) 덕석물기(1) 악기소리탐색(1) 악기소리 감상(1) 악기합주(1) 예농데농(1)	12	개구리(1) 우리 마을(1)	2
기타	이야기음악 만들기(2) 나무꾼과 호랑이 음악극(2)	4	여름소리 악기연주(2) 여름소리 발표회(2)	4
음악전체에 대한 국악 비율	12/32(37.5%)		2/22(9.1%)	
즐거워진 수업시간 에 대한 음악 총시간 (비율)	32/104(30.8%)		22/96(22.9%)	

위의 <표 2>를 보면 1학년에 비하여 현행 '즐거운 생활'이나 실험본교과서 둘 다 1학년에 비하여 국악곡의 비율이 하향되었다. 그러나 실험본교과서에서 국악곡이 두 곡으로 두시간 밖에 안된다는 것은 교육목표의 구현관점에서 보면 심히 우려 할 만 한 일이다.

'우리 마을'은 현행 교과서 1학년 1학기에 수록된 곡으로 두 시간짜리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실험본교과서 2학년 과정으로 올라가면서 한 시간으로 축소되었다.

또 즐거운 생활이 음악과 미술, 체육 세 영역의 통합이라 할 때 최소 음악부문의 지도시간이 30% 이상은 확보해야 하나 실험본교과서 1학년, 2학년 모두 28%와 23%내외인 것은 다른 과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함을 보여준다.

3) 감상곡 수 비교

<표 3> 감상곡 수에 관한 비교

구분		즐거운 생활(현행)	즐거운 생활(실험본)
1학년 1학기	국악곡	<따르기 비교> 산조 중 '휘모리' 산조 중 '진양조' 풍물놀이 (2차시)	없음
	서양악곡	오웬바흐의 '천국과 지옥' 생상의 '동물의 사육제' 중 '거북이' 프로코피예프 '피터와 늑대' (1차시)	호두까기 인형 중 '별사탕의 춤' 동물의 사육제 중 '사자왕의 행진' -참고곡: 왕벌의 비행, 거북이 (1차시)
2학년	국악곡	사물놀이	없음

1학기		국악기 탐색 (2차시)	
	서양악곡	생상의 '동물의 사육제' 중 '당나귀' 생상의 '동물의 사육제' 중 '거북이' 생상의 '동물의 사육제' 중 '캥거루' 생상의 '동물의 사육제' 중 '백조' 독일 민요 '소년한스' 프랑스의 민요 인디언의 노래 요나손의 '떠죽할츠' 리하르트의 '숲속의 물레방아' (4차시)	리하르트의 '숲속의 물레방아' <따르기 비교> 오웬바흐의 '천국과 지옥' 생상의 '동물의 사육제' 중 '거북이' 생상의 '동물의 사육제' 중 '백조' 럼스키코르샤코프 '왕벌의 비행' (2차시)

위의 <표 3>에서와 같이 감상곡 수를 비교해 보면 현행 교과서에는 국악곡과 서양악곡이 비슷하게 수록되어 있으나 실험본교과서에는 감상을 위한 국악곡이 전혀 실려 있지 않다. 특히 빠르기 비교를 위한 같은 주제의 차시에서 얼마든지 국악곡의 활용을 할 수 있음에도 1,2학년 전체에 걸쳐 한국도 수록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는 국악감상을 통해서 어린이들에게 우리 음악을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 제공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악기 지도 및 활용

<표 4> 악기 지도에 관한 비교

구분		즐거운 생활(현행)	즐거운 생활(실험본)
1학년 1학기	국악기	장구, 징, 쟁과리, 북, 소고, 율가락	장구, 소고, 율가락, 징
	서양악기	실로폰, 캐스터네츠, 템버린, 트라이앵글, 큰북, 작은북	리듬막대, 큰북, 작은북, 캐스터네츠, 트라이앵글, 템버린
2학년 1학기	국악기	장구, 징, 소고, 쟁과리, 북, 율가락	장구, 북, 소고, 징
	서양악기	실로폰, 멜로디언, 공명실로폰, 트라이앵글, 캐스터네츠, 템버린, 큰북, 작은북, 방울	심벌즈, 마라카스, 트라이앵글, 캐스터네츠, 템버린, 메탈로폰, 나무북, 귀로우드블록(나무관북), 방울, (쟁거심벌즈, 카바사, 예그셰이크)

위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악기지도 내용에 있어서 현행교과서는 학생들이 장구, 징, 쟁과리, 소고, 율가락 등 다양한 국악기를 저학년에서부터 자주 접하고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비하여 실험본교과서는 장구와 북, 소고만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가볍고 부피가 적어 국악시간에 활용도가 높은 율가락은 '1학년 1학기 5. 흔들흔들'

에서 한 단원 밖에 나오지 않는다. 현행 교육과정 체제에서 수시로 활용되었던 윗가락의 사용을 제한하고 리듬막대(스틱)으로 교체한 의도가 궁금하다. 음악적으로 좀 더 아름다운 소리를 위해서라면 우리나라의 북채도 있는데 굳이 국악지도단원에서조차 리듬막대라고 명명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더군다나 서양악기의 이름도 생소한 다양한 종류의 서양악기²⁾ 연주방법과 악기에 대한 설명이 교사용 지도서에 자세하게 설명되어³⁾ 있는 데 비하여 국악기는 그렇지 않다. 현행 교과서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국악기를 탐색하고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는데 비하여 실험본은 장구, 소고가 준비물이 되 실제적인 활동에서 활용할 필요가 없도록 구성된 점(1-1, 2단원 봄에 관련된 노래 부르기도 볼 수 있고, 소고는 서양악기와는 음색이 어울리지도 않을뿐더러 울림이 짧은 악기여서 강박악기로 사용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으나 검리듬치기로 소고와 캐스터네츠를 짝지어 지도하도록 한 점(1-1 3단원, 다양한 방법으로 노래부르기 등)은 전 영역에 걸쳐 서양악기 위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다. 악곡 선정의 문제점

악곡 선정 및 지도의 문제점으로는 논란이 많은 곡의 수록과 집필자 자신의 곡에 관한 것으로 다음과 같다.

1) 일본 음계로 된 악곡의 수록

홍양자의 연구결과⁴⁾에 의하면 그 동안 우리의 전래동요인 줄만 알고 부르고 가르쳤던 수 많은 노래들이 일본의 음계로 이루어진 일본의 전래동요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노래⁵⁾들이 실험본 '즐거운 생활' 교과서(2-1 교과서 78쪽~79쪽, 우리 마을(집)에 왜 왔니?)와 교사용지도서(1-1 교사용지도서 161쪽, 4. 누구를 만

2) 많은 오르프 악기가 소개되었다.

3) 1-1.2-1 즐거운 생활 지도서에 트라이앵글(3번 반복), 캐스터네츠(3번 반복), 마라카스(2번 반복), 귀로, 메탈로폰, 탬버린(2번 반복), 큰북(2번 반복), 작은북(2번 반복), 나무관북, 카바사, 팀파니, 심벌즈, 리듬막대 등은 주법과 악기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고 나무북, 소리막대, 실로폰, 핑거싱벌즈 등은 악기 카드 만들기 등 사진으로 소개되어 있으며 마라카스는 6가지의 모형을 제작하는 법을 소개한데 비하여 국악기는 소고와 윗가락 소개만 간단히 몇 줄 있을 뿐이다.

4) 1998년 홍양자는 '한국어린이가 부르고 있는 일본의 와라베우타(전래동요)'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에서 '여우야 여우야, 우리집에 왜왔니' 등이 일본 음계로 구성된 일본의 전래동요라고 하였다

5) 초등학교 즐거운 생활 2학년 1학기 177쪽에 "현재 알고 있는 전래동요들이 대부분 일본 음계에 기초한 노래임을 알고 선별하여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 :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세세세, 줄넘기 노래, 우리집에 왜 왔니, 기러기)"라고 곡명의 예들 들어 기술되어 있다.

남까요?)에 실려 있다. 또 1학년 1학기 첫 시간에 배우게 되는 창작곡(1-1 교사용 지도서 48쪽)인 '참 좋아' 도 그러한 음계로 쓰인 곡으로 입학년에 입학한 뒤 '즐거운 생활' 교과를 배우는 첫 시간에 그런 곡을 배운다는 것은 깊이 생각해 봐야 일이다.

2) 집필자 자신의 창작곡

언뜻 생각하면 집필자가 자신의 창작곡을 가지고 교과서를 구성하고 지도내용을 쓰는 일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 자신이 창작을 전공하였거나 큰 대회 수상경력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곡에 대한 자신감과 애착을 더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교과서는 특히 국정 교과서는 어느 한 개인의 교과서가 아니다. 온 국민이 보는 교과서이기 때문에 수록곡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며 그 단원과 차시의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곡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¹⁾

3) 악곡 지도내용의 부적절

전래동요의 경우 노래에 놀이가 수반되며 그 노래의 생명은 놀이와 노래가 함께 하는데 있다. 특히 즐거운 생활은 통합교과이기 때문에 신체적인 활동과 음악적인 활동이 함께 이루어지는 일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전래동요의 놀이와 노래가 별개로 구성되어 놀이는 전혀 다른 활동처럼 되어버렸다. 예를 들면 1학년 1학기 '남생아 놀아라' 1차시의 학습활동은 음의 구성이나 흐름결(리듬)을 살펴보고 세 가지 악기의 소리를 듣고 비교하기를 하고 박의 지도에 있어서도 장단의 개념 보다는 일정박의 개념으로 지도하여 서양악곡의 지도방법처럼 구성되었다. 이 노래는 음높이를 구분하고 일정박의 개념을 가르치는 것처럼 분석적으로 지도하기보다는 놀이와 노래가 함께 지도되는 통합 지도가 더 바람직하며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즐거운 생활' 교과서의 통합 취지를 가장 잘 살린다고 볼 수 있다. 거기에 다른 활동을 더한다면 전래동요의 특징을 살린 말붙임새와 장구장단에 맞추어 노래부르기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또 준비물에는 있지만 노래부르기에서 장구나 소고의 활용이 되지 않고, 리듬막대, 징과 소고, 세 가지 악기소리 구별활동이 있는데 '남생아 놀아라'라는 노래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지도가 되는지 모르겠다. 오히려 1학년 1학기 실험본교과서의 8차시, '남생이 놀이'가 신체적활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음에도 더 음악적 지도 내용에 더 가깝다.

또 1학년 1학기 1단원 9,10차시의 '장단 맞추어 신체표현하기'의 참고자료인 '장구

1) 7차 교과과정에 따른 교과서 집필 때에는 자신이 집필한 단원이 아니어도 그 학년에 집필자로 들어간 사람의 곡은 해당 학년에 실을 수 없도록 하여 수록곡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였다.

2) 몇몇이 이 용어를 사용하고는 있으나 교육과정상 공식적으로 인정된 바 없는 용어이며 북한의 교과서에서 사용되고 있다고는 하나 필자가 북한의 교과서를 보지 못하여 확인할 수는 없었다.

장단의 종류(교사용 지도서 64쪽)는 오류가 많다. 3분박 3박자인 세마치 장단을 3분박 4박자인 자진모리 장단처럼 잘못 표기하였으며 정간보안의 구음이나 구음 부호가 빠져 있거나 잘 못 표기되어 있고, 단모리 장단은 자진모리 장단이 2분박으로 변한 것이라고 했으나 표기는 3분박으로 되어 있다.

2학년 1학기의 '우리 마을'은 수업 내용의 양으로 보면 2차시에 해당하는 분량으로 현행 1학년 1학기에 2차시로 지도할 수 있도록 수록되어 있는 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시간에 지도하도록 한 것은 이 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IV. 결론

이상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즐거운 생활' 실험본교과서를 형식과 내용 구성면에서 분석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즐거운 생활' 실험본교과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가능하면 통합의 취지를 살려 주제도 통합하고 활동도 통합하려고 한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보인다. 특히 교과간 주제통합을 위한 내용 구성이나 체제, 삽화 등에 신경을 써서 노력한 점도 보인다. 그러나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2007 개정 교육과정의 구현'이라는 점에서는 생각해 봐야 할 점이 많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의 문제점과 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 구성의 배경이자 목표인 국악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이다. 1학년(36.8%)과 2학년(9.1%)의 국악곡의 비율은 7차 교육과정의 48.1%와 37.5%에 비교할 때 지나치게 축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심지어 감상곡으로 활용되는 국악곡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심히 우려할 만한 일이다. 또한 지도내용에 있어서도 국악곡에 대한 이해와 활동, 우리 문화의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는 내용이 눈에 별로 띄지 않았다.

과연,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자마자 서양음악과 서양악기를 많이 접하게 되는 학생들이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이해하고 애호하는 태도를 가지며 올바른 역사관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다양한 서양악기를 교과서의 화려한 사진과 그림을 통해서 익숙하게 보아 온 아이들이 낯선 국악기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는 국악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국악학습 내용 증대 및 체계화, 다양한 국악 학습 활동과 지도 방법을 제시하겠다는 2007 개정교육과정의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2007 개정 교육과정의 목표를 구현하기 위하여 역사의식과 민족적 자긍심을 강화할 수 있는 국악곡, 국악기의 관련 내용과 비중이 훨씬 더 늘어나야 할 것이다.

둘째, '누구를 위하여 교과서를 구성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오늘날 교육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교육과정이 개정되어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에 전래동요가 많이 수록되었을 때 현장의 교사들은 자신들에게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노래가 재미가 없다'거나 '어렵다'라는 반응이 많았다. 그러나 교육의 주체인 아이들은 전래동요가 나오면 어깨를 들쩍이며 즐겁게 부른다. 단순하고 반복적이면서도 다양한 전래동요가 학생들의 심리, 신체발달 정도에 알맞아 학생들의 흥미와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부른 '원곡'을 들려주어도 좋아하며 다시 들려달라고 조른다. 그러므로 교육 수요자의 관점에서 쉽고 흥겹게 접근하고 부를 수 있는 전래동요의 수를 더욱 늘려야 할 것이다.

셋째,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의 문제이다. 주어진 제재곡이나 주제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가장 중요한 점은 악곡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다. 그 노래가 무엇을 하기 위한 노래인지, 어떤 음악적인 내용과 개념을 어떻게 통합하여 가르칠 것인지, 그리고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냉정하게 분석해 봐야 한다. 특히 서양악곡과 국악곡의 지도내용이나 방법은 매우 다르다. 특히 신체적인 놀이와 음악적인 노래의 지도가 통합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전래동요의 경우 서양악곡처럼 분석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국악곡 본래의 성격을 살려 국악곡답게 지도할 수 있는 지도 내용의 구성이 필요하다.

넷째, 학생들의 정서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삽화의 색상과 그림체 등도 특별히 고려해야 할 것이며 삽화의 내용과 형식면에서 우리의 문화를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글씨체, 그림 등을 유의해서 그려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경기도교육청, 『시·도교육청 교육과정 핵심요원 연수(음악)』, 서울 : (복)너머인쇄사, 2007
- 교육인적자원부, 『즐거운 생활 1-1』, 서울 :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2003
- _____ 『즐거운 생활 2-1』, 서울 :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2003
- _____ 『초등학교 교사용지도서 즐거운 생활 1-1』, 서울 :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2003

- _____ 『초등학교 교사용지도서 즐거운 생활 2-1』, 서울 :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2003
- 교육과학기술부, 『즐거운 생활 1-1(실험본)』, 서울 : (주) 두산, 2008
- _____ 『즐거운 생활 2-1(실험본)』, 서울 : (주) 두산, 2008
- _____ 『초등학교 교사용지도서 즐거운 생활 1-1(실험본)』, 서울 : (주)
두산, 2008
- _____ 『초등학교 교사용지도서 즐거운 생활 2-1(실험본)』, 서울 : (주)
두산, 2008
- _____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I)』, 광주 : 한솔사, 2008
- _____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II)』, 광주 : 한솔사, 2008
- _____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V)』, 광주 : 한솔사, 2008
- 김보경, "교육과정 개정시기별 초등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속에 반영된 국악교육내용에
관한 연구", 청원: 한국교원대학교석사학위 논문, 2005
- 홍복기, "통합교육과정에 따른 놀이요의 지도방안 연구", 서울 : 한국교원대학교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1997
- 홍양자, 『전래동요를 찾아서』, 서울: 우리교육, 2002

국문주제어 : 즐거운 생활, 실험본, 2007 개정교육과정, 국악

key word : Joyful life, 2007 revised curriculum, textbook, Korean music